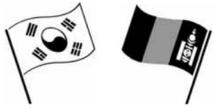


몽골 초원서 남도문학 지평 내다보다



광주전남작가회의 20명 문학여행 몽골 문인들과 토론·교류 협약도

바람과 초원 그리고 사막의 나라, 몽골. 남한 면적의 17배나 되는 몽골은 유서 깊은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지닌 나라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청기즈칸의 나라였던 몽골은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여행지가 됐다. 또한 많은 예술인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찾기도 한다.

우리 지역 문인들이 남도문학의 새 지평을 모색하고 몽골 문인들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몽골문학여행을 다녀와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는 최근 4박 5일 일정으로 박관서 회장을 비롯 전임회장 조진태·김경운 시인, 이지담, 강희진, 박철영, 유종, 주영국, 박인하 시인과 김해숙 작가 등 20여 명이 몽골문학여행(‘풍경과 풍경이 만나. 한국-몽골 문학인 만남’)을 다녀왔다.

이번 몽골문학여행은 남도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 지난해 처음 개최된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향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더욱이 ‘미투’ 운동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문인들의 몽골 문인들과의 교류는 정체된 문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체험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가회의는 이번 몽골 방문에서 현지 대표 문인 모임인 몽골작가협회(회장 샤를달라이)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몽골작가협회는 1000여 명의 문인들이 속한 대표 단체로 지난해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인 담딘수렌 우리양카이가 소속돼 있는 단체다.

아시아문학상은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아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들은 최근 4박5일 일정으로 몽골문학여행을 다녀왔다. 사진은 청기즈칸 국제공항에서 기념촬영을 한 모습.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아문학발전에 기여한 문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당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월레 소잉카 등 심사위원회는 우리양카이가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과 현대를 잃지 않고 장년의 지혜와 청년의 열정을 놓지 않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광주전남작가회의와 몽골작가협회는 “문학작품의 교류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 단체는 2018년부터 양국의 문인들이 상호방문하고 경험을 교환해 작품집 출간 및 기관지 매체에 작품을 게재하는 등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문인단체는 강희진 시인의 사회로 3시간 여에 걸친 문학 관련 토론을 나눴다. 우리양카이 시인을 비롯, 아시아 문학잡지 편집인인 비트호약 몽골문화예술대학교 교수 등 우리양카이 문학 전공자들도 참여했다.

우리양카이 시인은 기초발언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문학에는 과학과 철학이 있어야 하지만 문학과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양카이는 “낮 시간의 별처럼 시를 쓴다”는 견해를 밝히며 수평자로서의 창작 태

도를 강조했다.

이에 박관서 시인은 ‘오랑캐’라는 뜻의 ‘우리양카이’ 이름에 대해 물었다. 박 시인은 “아시아나 몽골이라는 변방의식이나 몽골 유목문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몽골의 주요 종교인 불교적 근본성이나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투영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우리양카이를 비롯한 몽골 문인들은 언급한 뜻이 모두 담겨 있다고 수긍했다. 문학 토론이 끝나고 강희진 시인의 몽골포토에세이집 ‘했으나 하지 않는 날들이 좋았다’가 몽골 측에 증정됐다. 책은 우리양카이가 직접 추천서를 써서 화제가 됐다.

한편 작가회의는 몽골작가협회와의 간담회 외에도 청기즈칸의 발자취를 탐색하고 울란바토르 광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회원들 가운데는 현장에서 쓴 시들을 국내 문학잡지 등에 발표해 많은 문인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작가회의는 이번 몽골문학여행을 계기로 향후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문학 단체와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매개로 남도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문화재단, 을 지원대상 202개팀 선정

지역협력형 사업 5개 분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공모를 시작한 2018년 ‘지역협력형 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지역협력형 사업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202개 단체·개인에 24억여 원을 지원한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15개 단체가 신청해 이중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린발레단,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극단사립사, 극단푸른연극마을, (사)문화예술진흥회 등 6곳을 선정했다.

예술가들의 창작발표 및 교류활동, 예술교육 등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은 9개 단체가 신청해 국운미술관, 의재문화재단, projectB, Overlab, 시온미디어, 지산들문화예술연구소 등 7곳이 선정됐다.

지역 예술인(단체)의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54개 단체가 신청했다. 그 결과 국제시각문화예술협

회, 풍류화축선방, 극단청춘, 광주작곡가협회, 글로벌메이킹아트네트워크 등 10개 단체가 선정됐다.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은 광주의 특색과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을 거점으로 한 사업을 우대해 선정했다. 신청 단체 64개 중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놀이패션명, 애드뮤직컴퍼니, 광주극장 등 14개 단체가 뽑혔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개인 지원액을 최소 300만원으로 정했다.

집수준 468건 중 165건을 선정했고 장르별로는 문학 40건, 음악 26건, 다원예술 20건, 전통예술 17건, 연극 9건, 무용 3건, 시각 50건이 포함됐다.

문화재단은 오는 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오후 1시 30분 집중지원사업(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오후 4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단체·개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www.gjcf.or.kr)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12, 7444~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투’가 나아갈 방향...광주여성재단 워크숍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는 5일 오후 4시 재단 8층 강실에서 ‘Me Too, With You’운동과 조직 내 성폭력’을 주제로 여성정책 현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현안 워크숍에서는 정춘숙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강사로 나서 서지연 검사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Me Too, With You’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권력 관계에 의한 조직 내 성폭력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

광주여성재단 염미봉 대표이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간에 공감대를 통해 연대하는 Me Too, With You운동 목적을 잘 부각시키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70-053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오페라 ‘아이다’ 출연 시민합창단원 모집

광주시립오페라단에서는 제1회 정기공연 오페라 ‘아이다’에 출연할 시민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아이다’는 오는 4월 6일~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음악대학 관련학과 학생 및 졸업생, 합창활동 경험 있는 광주·전남시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4일까지며, 이메일(wou-you-ll@hanmail.net) 및 방문 접수(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시립오페라단)하면 된다.

오디션은 5일 오후 5시 광주시립극단 연습실(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내)에서 실시한다. 실기전형은 자유곡(1곡)이다. 접수 및 오디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디션에 합격한 합창단원은 3월부터 음악과 연습연습을 거쳐 무대에 오른다. 아이다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장군 라다메스와 적국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정갑근 예술감독은 “시민과 가깝게 다가가는 오페라단이 되기 위해 시민합창단원을 모집하고자한다”며 “첫 정기공연인 만큼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무대를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062-412-2504, 062-613-823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논어·명심보감...광주향교서 배우는 한학



록양 박경래

광주향교(전교 김남진)가 3월부터 ‘논어’ 등 한학을 배울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명륜당, 문화재, 양사재에서 열리며 서예 강습(양정태)과 유교대학도 운영한다.

월·수·금 오전 10시에 열리는 ‘논어·맹자’는 사단법인 록양고문연구원 원장인 한학자 록양(綠洋) 박경래 선생이 강의를 맡는다. 한학자였던 조부의 가르침에 따라 내삼 때부터 한문을 배운 박 선생은 70년간 ‘유학’(儒學)의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특히 나주문화원의 ‘금성일기’ 번역을 시작으로 ‘귀류집’, ‘석전록’, ‘청광집’ 등 우리 지역의 문집 100여종을 번역·출간, 선인들의 학문을 알리는 데 힘써왔으며 (사)록양고문연구원을 설립, 후학들에게 꾸준히 한학을 가르치고 고문 번역작업을 전개하는 등 한학의 계승에 정성을 쏟아왔다. 그밖에 향교에서는 ‘격몽요결·명심보감’(박종예), ‘소학·대학’(염규홍), ‘추구·동몽선습’(홍성실) 등의 강의도 열린다. 수시 접수. 문의 062-672-7008, 010-4329-02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을 여는 학문의 즐거움...시민자유대학 6일 개강

고전 읽기·글쓰기·페미니즘 등

시민자유대학(학장 장복동)이 오는 6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근대한국에서 봄학기(10주 과정)를 시작한다.

2016년 3월에 문을 연 시민자유대학은 철학, 문학, 음악, 건축, 미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개설, 학기당 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봄학기는 동서양 고전 읽기, 글쓰기, 페미니즘, 독일철학, 정물수채화 실기 강좌로 구성된다.

이경태 전남대 교수가 진행하는 서양 고전읽기는 하이데거의 ‘예술작품의 기원’을 읽으며 동양 고전읽기에서는 이경환 전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장자’ 중 ‘내편’의 핵심 내용을 번역본 또는 원문으로 읽고 토론해, 장자 사상의 참맛을 느낀다.

또 ‘키워드’로 여는 글쓰기’는 우리 시대의 중심어(키워드)를 매개로 생각하기·토론하기·쓰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수업으로 장복동 시민자유대학장이 강사로 나서며 ‘젠더화된 몸의 기술: 사이보그 여성읽기’ 역자인 김경래 전남대 교수가 진행하는 ‘페미니즘으로 세상읽기’도 마련돼 있다.

특별기획 강좌 ‘독일철학으로 가는 여행’은 니체 등 독일 철학자들의 정신을 독일 철학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다. 5월에는 건축, 미술, 음악 등을 다루는 ‘독일예술로 가는 여행’ 강좌일 열리며 이를 토대로 8월 ‘독일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사는 박구용(전남대 교수·시민자유대학 이사장), 강신준(동아대 교수), 김정현(원광대 교수) 등이다. 그밖에 서기문(전남대 교수) 작가가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는 시민-정물수채화’도 진행된다. 문의 062-961-11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만홀릭 커밍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

CHANNEL A